



2020. 03. 24.

## 2020 도쿄 패럴림픽 연기

2020 도쿄 패럴림픽 대회가 2021년으로 연기되었음을 알립니다.

IOC 집행위원회 및 일본 정부 간 회의를 통해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회 연기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.

최근 전 세계에서 유행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 패럴림픽 대회의 연기는 옳은 일입니다. 사람의 건강과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, 팬데믹이 선언된 현 시점에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

이 전례없고 예측 불가능한 질병은 이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 월요일(3.23.) 세계보건기구(WHO)의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현재 가속화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. 375,000 이상의 케이스가 보고되었고, 그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WHO가 오늘(3.24.) 제공해준 이 자료들은 국제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회 일정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

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는 2021년 여름 이전에 개최 예정이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최종 협의 후 결정될 것입니다.

이 결정과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. 그러나 전례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적합한 대응책은 마련 중에 있으므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.

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.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appearing to read 'A. Parsons'.

Andrew Parsons  
President  
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